

2) 경무사(景武祠)

경무사(景武祠)는 인조 때 진무원종공신록(振武原從功臣錄)의 일등공신이자, 병조참판으로 추증된 남몽길(南夢吉)을 모시는 사당이다. 남몽길은 영양 남씨 현감공파의 파시조인 남신(南頤)의 후손이다. 1684년(숙종 10)에 창건, 금계사(琴溪祠)라 부르다가, 1851년(철종 2)에 중건하여 경무사로 개칭하고, 1877년(고종 14)에 재중건했다. 남몽길은 이괄의 난 당시 호군(護軍)을 지냈으며, 도원수 장만의 휘하에서 난을 평정하는 데 큰 공을 세워 관직을 받았다. 남몽길에 대한 기록은 간재 전우의 문인인 무실재 남진영이 쓴 『경무사봉안문(景武祠奉案文)』이 현전한다.

3) 서재들(書齋들)

옛날 이곳에 서당(書堂)을 짓고 후진(後進)을 육성하던 곳이라 전한다.

제20절 정림3리(井林三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비봉산(飛鳳山)이 우뚝 솟아있고, 정림1리와 접(接)하여 있으며, 서쪽은 남대천(南大川) 건너편에 개물산이 있고 북면 하당리와 접해있다. 남쪽은 신선봉(神仙峯)이 솟아있으며 신림리와 접하고, 북쪽으로는 정림2리인 다리골이 있다. 마을회관은 2004년에 건립되었다.

2. 마을의 역사

1) 산두(山頭)

1650년경에 밀양 박씨(密陽朴氏) 박상(朴詳)이 마을을 개척(開拓)할 때, 마을 앞에 흐르는 남대천(南大川) 변(邊)에 긴 모래밭(沙田)이 펼쳐있었다 하여 장사동(長沙洞)이라 하였다 한다. 그 후 1740년에新安 주씨(新安朱氏)가 입주(入住)하면서 산두(山頭)라 개칭하였다고 전한다. 또는 박씨(朴氏) 선조(先祖)가 묻힌 곳이 말(斗)의 형국(形局)이라 하여 산두(山斗)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마을을 이루고 있는 곳이 산(山)머리라 하여 두(頭)자를 써서 산두(山頭)라 한다. 정림1리에 속하였다가 분동되었다.

2) 올미골(兀尾谷)

예천 임씨(醴泉林氏)의 입향조(入鄕祖)인 긍(兢)의 묘소(墓所)가 있는 곳으로, 산세(山勢)의 끝봉(峯)이 우뚝 솟아있는 봉우리라 하여 올미골(兀尾谷)이라 부른다.

3. 가구 분포

총 24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영양 남씨(英陽南氏), 신안 주씨(新安朱氏), 예천 임씨(醴泉林氏), 파평 윤씨(坡平尹氏), 김해 김씨(金海金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구두산(拘頭山)

산(山)의 형국이 ‘앉아 있는 개의 머리와 흡사하다’ 하여 구두산(拘頭山)이라 한다.

2) 독묘산(獨墓山)

산(山)봉우리가 묘(墓)와 같이 생겼다 하여 부른 이름이다.

3) 성황당(城隍堂)

음력 정월 보름날 자정(子正)에 엄선된 제관(祭官)이 마을의 강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린다.

4) 장사곡(長沙谷)

마을 앞 남대천(南大川) 변에 2km나 되는 백사장(白沙場) 골짜기가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제21절 호월1리(湖月一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고산성(古山城)(城底洞)이 바라보이고, 서쪽은 마을 뒷산을 경계하여 호월3리(湖月三里)가 있으며, 남쪽은 남대천(南大川) 건너에 가원동(佳原洞)이 있고, 높은 범대미산이